

사서추천제도와 베스트셀러 목록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Librarian Recommendation System and Bestseller List

남영준 (Young Joon Nam)**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장서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계량화된 객관적 기준점 제시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테디셀러는 정기간행물 형태의 학습서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현대소설로서 스테디셀러는 특정 작가에 의존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스트셀러는 출판사와 저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만화와 아동용 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의 도서는 베스트셀러 선정에 상당부분 상관성을 갖고 있었다. 추천된 도서 한 권당 추천 도서의 대출 수 평균은 14,871권이었으며,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도서 한 권당 평균 대출 수는 53,531권이었다. 한편 대출데이터를 기준으로 약 80~82%의 도서가 전체 상위권 대출의 90%를 감당하고 있고, 약 27~29%의 도서가 전체 상위권 대출의 50%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는 일련의 파레토법칙이 공공도서관 대출패턴에서도 굳건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의 대출은 전체 대출에서 50.6%를 차지하였으며, 문학 중에서 한국문학작품이 전체 51.3%를 차지하였다. 자연과학은 다른 주제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문헌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theoretical basis and quantified objective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Most of the study books were in the form of periodicals as a steady seller. Most of the steady sellers were textbooks which published periodically. As a modern novel, a steady seller was able to confirm the phenomenon of dependence on a specific author. Bestsellers were investigated to be influenced by publishers and authors. Books of publishers that publish comics and children's textbook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election of bestsellers. The average number of recommended books borrowed per recommended book was 14,871. The average number of loans per book selected as a bestseller was 53,531. Based on the loan data, about 80-82% of all top-tier loans were covered by 90%, and about 27-29% of all top-ranked loans were covered by 50%. This shows that the Pareto Principle can be firmly applied to public library lending patterns. Loans in the field of literature accounted for 50.6% of the total loans. Among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accounted for 51.3% of the total. The natural sciences were generating more loans with a relatively small pool of literature compared to other subject fields.

키워드: 대출데이터, 추천 도서, 베스트셀러, 장서관리정책, 이용자 요구, 수서
loan data, recommended books, bestsellers,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user needs,
book selection

* 이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yj@cau.ac.kr)

■ 논문접수일자: 2021년 8월 29일 ■ 최초심사일자: 2021년 9월 11일 ■ 게재확정일자: 2021년 9월 18일
■ 정보관리학회지, 38(3), 311-334, 2021.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3.311>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서관 서비스 방법을 고도화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콘텐츠로서 장서는 도서관 핵심 자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장서구성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를 자신이 방문한 도서관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서관은 제한된 예산과 공간, 인력의 부족 때문에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서관은 이상적인 장서구성을 지향하고 자원의 한계라는 현실을 수용하면서 자관의 체계적인 장서관리정책을 통하여 유의미한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서관리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도서관은 책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서 혹은 도서선택, 선서(選書)로 표현하였다. 초기 도서관 장서관리 방법은 온전하게 사서와 도서관의 판단에 의존하여 도서선택행위가 이루어졌다. 사서의 판단으로 이용자의 표현되지 않는 요구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자원을 수집하였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정보서비스는 이용자 교육과 이용자 요구에 대한 응대로 구분하지만 초기 도서관에서는 문해교육과 서지교육 등과 같이 사서가 주도적으로 이용자를 계몽하는 관점에서 서비스가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장서관리도

정보서비스 관점에서 사서 주도의 장서관리정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장서관리정책은 현대 도서관 서비스 정책이 이용자 교육의 관점에서 이용자 요구에 대한 대응적 서비스로 변화됨에 따라 함께 변화하였다.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외의 채널을 통해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의 표현하지 않는 요구를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장서관리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자 요구와 사서의 의도된 선택 사이에 괴리는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 유인이 어려워져 이용자의 도서관 기피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서의 균형적 구성 전략이 과거에 비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용자에게 매우 유의미하다고 사서가 판단한 장서로서 이용자가 찾지 않는 장서와 사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장서이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장서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은 현대 도서관과 사서들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실제 이용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서의 책임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도서관 현장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단행본 도서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장서와 사서들이 추천하는 장서를 비교하여 이용자 요구와 사서의 판단에 대한 균형적 장서구성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서의 판단과 이용자 요구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 혹은 동기화 현상을 분석하여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이용자에게 의미 있고 합리적인 장서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계량화된 객관적 기준점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서관 정보나루의 대출통계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추천 목록, 국내 유통판매서적상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국내에서 유통하는 단행본을 대상으로 한 것과 국내 최대 매출을 보이고 있는 유통판매서적의 판매실적만을 분석한 것이다. 또한 도서관 정보나루의 전체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API로 수집이 가능한 연간 5,000권의 대출 장서만을 사용하여 대출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특정 학문분야나 특정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소장단행본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1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중단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2. 공공도서관의 장서운용 현황

2.1 대출율

우리나라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 평가기준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공공

도서관 분야의 평가는 4개 영역, 18개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배점은 정량(770점)과 정성(230점)을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 정보자원영역은 장서영역과 정보자원협력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장서영역은 '자료구입비'와 '연간 장서 증가수',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실행 실적'으로 3개 평가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또한 정보서비스 영역에서는 '도서대출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에는 정보자원영역의 165점과 도서관 서비스 영역의 50점으로 총점이 215점으로 각 도서관의 장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전국 도서관 평가의 공공도서관 영역에서 장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전체 평가 점수가운데 21.5%의 배점이 배당되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이와 같은 장서에 대한 높은 배점은 도서관 서비스에서 장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용자의 도서대출율은 다음과 같이 최근 5년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용자의 요구보다 도서관의 판단이 우선하는 기존의 수서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의사결정 지원서비스(일명 솔로몬)의 2020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장서 가운데 미대출자료는 평균 50%

〈표 1〉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 대출빈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자체	125,153	124,515	120,239	122,513	111,019
교육청	124,007	120,050	110,143	110,870	67,343
사립	22,273	20,486	20,052	21,013	18,661
1관당 대출도서 수	130,769	121,528	115,990	117,962	100,449

내외이다. 즉 최근 5년 이내에 이용자에게 한 번도 선택되지 않는 자료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도서관은 이용자 지향형 수서정책(demand-driven process, DDA)을 수용하고 있다. 이 구매방식은 이용자가 필요한 장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과거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사서가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자 교육 관점의 수서방식에서 이용자 요구에 응대하는 수서 정책으로 20세기부터 도서관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Edward & Karen, 2015).

전통적으로 학술저널은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브래드포드의 법칙과 같은 정량화와 객관화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단행본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화 혹은 객관화를 위한 계량서지학 방법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즉 인용 분석방법에 기반한 많은 장서개발에 대한 관련 연구와 이론은 학술저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행본의 경우에는 베스트셀러와 대중문화자료와 같은 도서관 외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도서관 장서의 중요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Crawford & Harris, 2001). 따라서 많은 도서관은 도서관 장서에 대한 대출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이용자 요구 혹은 구매행위를 장서구성 혹은 수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2.2 이용자 희망도서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도서관은 장서 구입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

용하기 위해 희망도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희망도서제도는 장서구성이론 가운데 요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서비스 모델이다.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기본 장서목록 연구'(한국비블리아학회, 2008)에 따르면, 기본장서구성(core collection)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 내용에, 지역사회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 구입의 10~30% 내외를 배정하여 이용자 희망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서의 선택기준에 있어서도 이용자 희망 자료의 경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용자 희망도서는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의 핵심 요소이며 가장 우선시 되는 기준으로 적용·운영되고 있다. 자료 선정의 우선 기준과정에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 가능성은 자료의 내용과 내재적 가치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정 기준으로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강은영, 장덕현, 2012). 왜냐하면 희망도서제도 서비스가 이용자 요구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고, 이에 비해 처리 방법이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사서의 수고를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희망도서제도 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 처리 방법이 간편하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도서관 장서의 질적 가치 판단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용자 요구를 우선해야 하는지, 자료의 가치에 우선을 두고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정 이론은 근대적 관점의 공공도서관이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요구와 자료 가치의 양자

대립에서 양서 선정 원칙에 기반을 두고 이용자 요구를 중요 요소로 간주하고 확대하는 장서관리운영 방향이 공공도서관의 일반적 경향이다. 대부분 공공도서관은 자료 선정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희망도서에 대한 장서 구성 비중에 대해 선정 기준을 장서개발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 구성원의 성향, 희망도서에 대한 도서관 홍보 방식에 따라 희망도서제도 서비스의 활성화 정도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용 가치를 우선하는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지역사회와 이용자 연구를 통한 이용자 분석과 소장 장서의 이용 분석에 기반하여 장서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취지는 우리나라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단행본 장서에 대해서 사서 중심의 단행본 수집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요구가 있는 단행본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단행본 구입예산의 절감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요구론 수용의 형태로 변질되는 단점도 갖고 있다.

2.3 사서중심의 장서구성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 사정에 맞는 유용한 장서개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장서개발정책을 통해 도서관은 자관의 장서수준과 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 장서개발 정책은 해당 도서관이 어떤 책을 어떤 기준으로

구입할 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개발 철학에 따라 사전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 혼합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1 사전규제 방식

사전규제 방식은 장서개발정책에 어떤 유형의 장서에 대해 구입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이용자 희망도서 대상 자료는 정보 제공 적시성을 비롯하여 신속성 및 독서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단 도서관 자료 구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전 규제 방식의 장서개발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의 자료선정지침의 일부를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 2020)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기소장 자료, 구입 중 및 정리 중인 자료나 유사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자료
- 다.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 라.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전집류
- 마. 문제집, 수험서, 참고서, 교과서, 워크북
- 바. 외국도서, 스프링제본, e-Book, POD(주문제작)
- 사. 품질, 절판, 출간예정도서 등 희망도서 선정 시점에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도서
- 아.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자료, 무협지, 만화류 등
- 자. 연감, 백서, 사전, 보고서, 경전(성경, 불경 등), 사진집, 악보집, 전시도록 등의 참고도서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장서관리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에서 '출판된 지 5년 이상인 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과 함께 사서 혹은 도서관 당국이 '미풍양속, 정서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도서'와 같이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사전규제 방식은 이상과 같이 구입을 금지해야 하는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과정에 의미없는 자료의 유형을 사전에 범주화하는 장서관리지침이다. 이 방식은 구입대상 자료가 적을 경우에 효과적이지만 구입대상 자료가 방대한 규모일 경우에 사전규제 방식의 장서관리 정책은 장서 수준의 균형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2.3.2 사후규제 방식

사전규제 방식이 구입을 지양하는 유형을 명시한 것에 비해 사후규제 방식은 구입 대상이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장서관리정책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하여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의 구입은 지양하는 형태로 장서관리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중랑구립정보도서관, 2019).

- 1)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인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 2) 모든 주제에 걸쳐 기본서를 수집한다.
- 3) 국내외 저작을 불문하고 고전으로 인정받는 저명한 저작은 가급적 빠짐없이 수집한다.
- 4) 청소년, 주부, 노인 등 일반시민의 교육, 교양과 정서함양, 교단 지원자료, 참고자

료에 중점을 둔다.

- 5) 최신정보의 자료는 신속하게 수집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 6) 자료구입 구성비는 자료이용률(50%), 현장서(20%), 출판현황(20%), 희망도서(10%)에 의한다.
- 7) 각종 참고자료(색인, 사전류, 서지류, 편람, 연감, 통계자료, 도감류 등)도 수집한다.
- 8) 외국도서의 경우는 가급적 수집을 제한하나, 참고자료로서 이용률이 높거나 국내에서 출판되지 않는 분야의 자료는 수집한다.
- 9)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 출판된 영문, 일문자료는 외국인 이용자 및 국가 홍보 차원에서 수집한다.

사후규제 방식은 가이드라인에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전부를 수집하고 최소한의 거름작업(filtering)을 한 후에 장서로 편입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선제적으로 이용자 요구를 예측하여 사서 중심의 장서관리를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계 공공도서관은 사후규제 방식의 형식으로 장서관리정책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용자 희망도서제도를 병행하여 장서를 구성하고 있다. 사후규제 방식은 도서관 장서관리 예산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에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2.3.3 혼합방식

혼합방식은 장서관리원칙 혹은 장서관리 가이드라인에 수서를 피해야 할 것과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할 것을 모두 기술한 방식을 의미한다.

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성한 공공도서관 장서관리매뉴얼의 일부이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일반기준과 우선기준, 제외기준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우선기준에서도 제외의 개념을 기술하였고, 제외 기준에서도 선정의 기준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1) 일반기준

- 정보의 최신성을 위하여 1~2년 이내에 발행된 신간자료를 선정한다.
- 다만 고전으로 인정되는 저작 및 우선 수집의 필요성이 대두된 자료는 구간자료일 경우에도 갖출 수 있다.

2) 우선기준

- 이용자의 희망도서는 가능한 우선 선정한다 (단, 도서관 소장본이거나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3) 제외 기준

- 장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외한다.
- 판타지, 무협지, 로맨스 소설, 인터넷 소설 등의 장르문학과 만화책은 가능한 현장 수서, 실물 수서를 통해 검토 후 선정한다.

한정된 예산적 제약을 받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상의 혼합형 장서관리정책 혹은 가이드라인이 도서관 현장에서 실질적 지침으로 유용할 것이다.

2.3.4 선정도구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수서를 위하여 참고도구를 활용하여 책을 구매한다. 그 참고도구는 출판사의 출판목록을 비롯하여 유통사의 베스

트셀러 목록, 유관도서관의 추천 도서목록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도서관 대출데이터로서 이용자 요구와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판매량, 인용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수서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Tyler et al., 2019).

이용자 희망도서제도는 이용자가 대출을 희망하는 자료를 나타낼 수 있는 참고도구로서 베스트셀러로 대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예산으로 구입 의사가 있는 것은 자신을 대리하여 도서관을 통해 구입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서추천 도서는 이용자에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도서를 사서가 선제적으로 확보한 도서이다. 강은영과 장덕현의 연구(2011)에서 자료선정에 가장 유용한 도구조사에서 '서점의 베스트/스테디셀러 목록'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다음의 도구로는 '관련 단체나 기관 발행 권장도서목록' 등이 유용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매뉴얼(2010)에도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타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 및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추천·권장도서류는 가능한 우선 선정한다'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스트셀러목록을 현장 사서들이 가장 의미있는 선정도구로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활용하는 것은 이 목록이 이용자의 요구를 잘 표현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서의 추천 도서목록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장서관리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3. 사서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

이 절에서는 사서가 추천한 도서와 베스트셀

리에 등재된 목록 간의 관계성을 조사한다.

3.1 사서추천 도서

도서의 추천은 도서관을 비롯하여 도서관을 비롯하여 정부, 학회, 학교, 언론사, 일반단체, 출판유통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추천은 교양도서 위주로 추천하는 기관과 특정 주제 영역의 전문도서를 추천하는 기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도서나 특정신문사의 우수도서추천은 교양서 가운데 내용적 가치를 판단하여 매년 일정 도서를 우수도서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적 전문서적을 대상으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환경분야의 우수환경도서를 매년 선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추천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의 성격에 따라 교양서 혹은 전문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계에서는 대학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들이 이용자를 위해 필독서 혹은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이용자에게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도서목록을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 추천은 대부분 교양도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은 정기적으로(현재는 월단위로) 사서추천 도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아동청소년 서적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추천 도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도서관이 도서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용자들

의 도서선택의 편의성과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도서관 장서로의 유인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실제적으로 초등학생은 도서를 선택할 때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 등 내부요인보다 교사나 친구의 추천여부, 목록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더 받는다(권이은, 2020). 또한 책을 소개하는 방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독서흥미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서교사가 책을 소개하는 방식이 초등학생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장 높일 수 있다(박경희, 조아라, 이명규, 2021). 또한 대학생들도 사서추천 도서의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학교육시스템에서 의무적으로 읽혀야 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이경민, 2012). 왜냐하면 가치있는 책이지만 실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대중적 산물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수준과 관심영역에 따라 가치와 상관없이 베스트셀러에 등재되기도 하고 베스트셀러에서 배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이중환, 1990). 따라서 사서추천제도는 이용자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들을 발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선한 목적을 갖고 있어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도서관 안내 서비스이다.

3.2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는 1897년 미국의 월간 문예잡지 <북맨>이 전국적으로 잘 팔리는 서적을 '베스트셀링 북스'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장동석 외, 2006). 1891년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Sales of Books During the Month'으로 판매량에 따라 월별도 목록을 제공하는 것

에서 시작되었다(Bassett & Walter, 2001).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명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판매된 자료의 양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오프라인 판매상과 온라인 판매상은 자체 판매량을 기준으로 주간과 월간, 연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를 선정하는 기준은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회사의 베스트셀러 선정기준은 영업점과 인터넷을 통해 도서와 e-북을 합산한 판매량이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는 베스트셀러를 선정하여 공개하지만 이 경우에는 판매량이 아니라 미국 전역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한 대출데이터를 근거로 선정하고 있다(ALA, 2018). 이 연구에서 활용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적 유통 판매회사는 베스트셀러의 분류기준을 분야종합, 해외소설과 인문, 교양과학, 아동만화 및 여행 등으로 주제와 지리적 영역을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전통적인 도서관 분류기준표를 사용하지 않고 판매업자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주제별 베스트셀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체적인 분류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책을 판매하는 관점에서 구매자들의 선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판단한다.

도서관의 장서관리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베스트셀러 목록은 도서관 장서관리 정책에 있어 다른 참고자료와 함께 중요한 수서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서관의 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참고도구 가운데 많은 도서관이 베스트셀러를 하나의 참고도구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공공도서관은 수서를 위해 참고할 자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Kenton County Public Library, 2019).

- 1) 도서리뷰자료
- 2) 표준 도서목록
- 3) 베스트셀러 목록
- 4) 이용자 요구
- 5) 권위있는 학자나 단체에서 추천한 도서 목록
- 6) 언론에 소개된 자료
- 7) 인터넷 자료
- 8) 잘 알려진 대중작가작품에 대한 실물 수서

이처럼 미국 도서관 현장에서도 베스트셀러 목록을 수서에 참고하고 있으며 이 목록은 리뷰와 이용자 희망도서(Patron requests)와 함께 중요한 의미있는 도서선정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베스트셀러 목록은 추천 도서의 목록 대상으로 유심히 보아야 하고, 그 베스트셀러 목록은 실제로 가장 좋은 추천 목록일 수 있다. 도서관 장서관리정책에서 제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대한 선정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이중한, 1990). 한편 베스트셀러 선정에 해당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주제에 관계인이 참여할 경우에 베스트셀러목록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여 선정주체에 대한 중립성을 강조하며 베스트셀러 목록의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주장도 있다(김선남, 박홍재, 2006).

이와 같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대한 객관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지만 판매량과 함께 시간의 경과추이를 고려할 경우에 베스트셀러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는 데이터의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이용자 요구론 관점에서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베스트셀러 목록을 활

용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에 대해 독자들의 신뢰를 전제로 이용자에게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과 마케팅의 일종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논의가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베스트셀러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건 간에 독자의 책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권이은, 2020) 선정도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4.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의 상관성 분석

이 절에서는 연구는 사서추천 도서와 판매도서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4.1 활용대상 데이터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사서추천 도서 리스트(2010~2019년)
- ② 국내 유통판매서적회사의 10년간 베스트셀러 리스트(2010~2019년)
- ③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보나루의 10년간 대출통계(2011년~2020년)¹⁾

사서추천 도서 리스트(이하 추천 도서로 표기함)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을 전체 1,777건을 스크롤링하여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

천 도서로 연도를 제한하여 총 1,051권의 추천 도서를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 유통판매서적회사를 통해 해당 회사에서 공표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베스트셀러 리스트 가운데 상위 5,500순위의 등재된 도서를 요청하여 총 54,969권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받아서 분석하였다. 베스트셀러는 연도별 중복을 허용하였다. 그 이유는 장기 베스트셀러의 패턴분석과 함께 대출율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각각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이전에 데이터를 2번에 걸쳐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1차적으로 추천 도서목록에 13자리 ISBN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부착하였다. 또한 시리즈물로 되어 있어서 2차적으로 두 개의 ISBN을 부여한 추천 도서는 각각을 분리하여 1권의 자료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ISBN 이외에 해당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워 제목이 같은 자료 혹은 출판물에 대한 비교를 수작업을 처리하기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정보나루를 이용하여 연간 API를 이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5,000권씩 10년간 50,000권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대상 자료를 구축하였다. 대출도서도 연도별 중복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를 종합하면 사서추천 도서 1,051권과 베스트셀러목록 54,969권, 대출도서 50,000권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4.2 분석결과

분석은 우선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를 비교

1) 도서관정보나루의 통계를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확장하여 분석한 것은 2019년에 추천한 책에 대한 대출패턴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하였다. 그와 함께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를 도서관 정보나루의 총 대출데이터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은 정량적 분석과 필요에 따라서 수만건의 데이터를 제한된 지면에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추세는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4.2.1 동시등재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와의 중복율을 확인하기 위해 두 리스트간 중복된 도서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인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 사이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341권이었다. 추천 도서 관점에서 분석하면 추천 도서 전체 1,051권 가운데 베스트셀러에 동시에 중복되어 나타난 도서는 341권으로 약 31.46%의 추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도 등재되었다. 베스트셀러로 관점에서 계산하면 54,969권 가운데 341권의 추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포함되어 약 0.62%로 조사되었다. 베스트셀러의 경우에 연도별 데이터 수집을 하여 합산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베스트셀러의 중복이 존재하였다. 중복된 도서

를 하나의 도서로 간주하여 중복을 제거하면 30,439권이 10년간 베스트셀러에 등재되어 있어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약 1.13%의 추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4.2.2 주제 분석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가 주제적으로 어떤 연관성 혹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된 도서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추천 도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활용하기 위해 문학작품과 각 주제 영역의 교양서(비문학 작품 등)를 고르게 추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베스트셀러의 주제는 문학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자기계발 등 취업관련 자료로서 외국어 등의 자료가 많았다. 이에 비해 추천 도서는 교양적인 것 위주로 추천되어 취업, 만화, 학습서 등과 같이 주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표 3>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사서들은 추천 도서를 문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

<표 2> 사서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 일치율

	사서추천 도서	베스트셀러도서	베스트셀러중복제외
조사대상권수	1,051	54,969	30,439
일치권수	341	341	341
불일치권수	710	54,628	30,098(1.13%)

<표 3> 추천 도서 주제 비율

주제분야	건수	비율
문학	236	22.45%
사회과학	276	26.26%
인문과학	280	26.64%
자연과학	258	24.55%
(비어있음)	1	0.10%
총합계	1,051	100%

학을 대분류하여 추천을 대략 25%내외로 균형 감있는 추천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베스트셀러의 주제분포는 <표 4>와 같았다.

문학(시와 문학 등) 자료는 전체 자료 가운데 19.84%로 조사되었으며 과학분야(과학, 기술, 컴퓨터 등)의 자료는 6.01%에 해당하여 사서가 추천한 추천 도서목록의 주제 균형성과 비교하면 과학분야의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문학분야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화와 아동, 유아 등과 같이 주제영역의 배정이 어려운 자료도 17.24%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만화의 경우에 과학 관련 만화

에 대해서는 한국십진분류체계의 예술영역에 배정하지 않고 과학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객과 같이 음식기행 만화를 예술 혹은 취미, 여행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하여 추천 도서와 같이 4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또한 추천 도서 가운데 문학과 비문학의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 추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해당한 자료가운데 문학은 102권으로 나타났고 비문학은 239건으로 조사되어 비문학자료의 경우가 베스트셀러에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문학의 추천 도서는 비문학 사서추천 도서에 비해 대중적 판매에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4> 베스트셀러 주제분류별 백분율

주제분야	건수	비율
소설	6,727	12.24%
아동	5,640	10.26%
외국어	5,181	9.43%
경제/경영	4,198	7.64%
시/에세이	4,177	7.60%
유아	4,177	7.60%
인문	3,971	7.22%
자기계발	3,485	6.34%
만화	2,649	4.82%
여행	2,269	4.13%
예술	1,976	3.59%
컴퓨터	1,675	3.05%
역사/문화	1,243	2.26%
요리	1,234	2.24%
가정/생활	1,049	1.91%
종교	1,020	1.86%
과학	946	1.72%
정치/사회	945	1.72%
취미/스포츠	889	1.62%
건강	878	1.60%
기술/공학	640	1.16%
총합계	54,969	100%

〈표 5〉 추천 도서 문학/비문학별 일치/불일치건수

문학/비문학 구분	불일치	일치	총합계
문학	134	102	236
비문학	576	239	815
총합계	710	341	1,051

4.2.3 베스트셀러의 유지 형태

실제 판매량으로 2년 이상 베스트셀러를 유지한 도서는 전체 대상 도서 가운데 11,425권으로 조사되었다. 최대 10년동안 베스트셀러로 유지된 책은 174권, 9년 이상 베스트셀러는 125권, 8년 이상은 159권, 7년 이상은 239권, 6년 이상은 452권, 5년 이상은 706권, 4년 이상은 1,215권, 3년 이상은 2,333권, 2년 이상은 6,022권으로 조사되었다(이하 스테디셀러로 표현함). 스테디셀러는 10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자료들은 베스트셀러에 특정 해에는 등재되지 않았다가 새로이 베스트셀러로 등재된 것과 베스트셀러로 등재된 이후로 매년 등재된 자료가 혼재되어 있었다.

스테디셀러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 ‘굿모닝 팝스’와 같이 매년 동일한 ISBN으로 발급되는 정기간행물적 성격을 갖는 단행본 형태의 학습교재들로 조사되었다. 또한 바이올린 악보와 같이 시간에 특별하게 의존하지 않는 악보자료와 주요 신학자료 등이 존재하였다. 문학분야 스테디셀러는 ‘데미안’ 등과 같은 고전문학작품이 현대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대소설은 다양한 작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명작가(예: 기욤 뫼소)의 작품들이 스

테디셀러로 조사되었다. 어학교재와 같은 교재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동소설과 고전소설, 악보 등 스테디셀러는 저명한 저자들의 작품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베스트셀러는 출판되고 평균 약 1.90년이 경과한 이후에 베스트셀러로 등재되었다.

4.2.4 추천과 베스트셀러의 관계

사서추천 도서 가운데 사서추천이 이루어진 이후에 베스트셀러로 채택되는 경우와 베스트셀러가운데 사서추천 도서로 등재되는 경우, 동일년도에 선정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 6〉 참조).

즉 전체 추천 도서(1,051권) 가운데 베스트셀러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710권)와 동일년도 선정된 도서(275권), 추천이 이루어진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11권)를 고려하면 베스트셀러가 사서의 추천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5 베스트셀러와 출판사와 저자와의 관계성

베스트셀러를 2개 이상 출판한 출판사 가운데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출판한 회사는 〈표 7〉과 같다.

〈표 6〉 추천 도서 및 베스트셀러 선후관계에 따른 도서 건수(소수점 이하 절삭)

불일치도서	추천 도서 우선 도서	베스트셀러 우선도서	동일년도 선정도서
710(68%)	11(1%)	55(5%)	275(26%)

〈표 7〉 베스트셀러 2개 이상 출판한 출판사 및 도서 건수(연도별중복허용)

출판사명	베스트셀러 발행권수
대***	723
학***	661
서***	575
길***	557
위***	460
문***	445
2***	363
삼***	362
시***	348
중***	337

출판사 발행자료는 발행 1위부터 3위까지는 아동용 만화 등을 발행하였으며, 4위는 유명인들이 집필한 도서와 만화를 동시에 발행하는 출판사이다. 이런 현황으로 유추하면 베스트셀러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일반 판매량을 추후 집계한 결과로써 독자들에게 대한 선택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10여년이라는 중단적 상황에서 서도 만화와 판타지소설, 흥미 위주의 도서는 독자들에게 지속적인 선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베스트셀러를 2개 이상

집필한 저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베스트셀러의 저자 가운데 만화나 학습용 외국어 교재 등은 대부분 편집부에서 제작이 이루어져 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편집부의 저자들이 출판 저작자 3위까지 수행하며 상위 10중 5개가 편집자로 표기한 단체명에 의해 집필된 베스트셀러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출판 저작을 수행한 저자 가운데 편집부와 같은 개인이 아닌 실제 저작자의 상위를 조사하여 개인저작자들의 상위 10명을 선정하였다. 〈표 8〉 저자가

〈표 8〉 베스트셀러 다 출판 저자

저자	순위	주제	국가
송**	3	만화	한국
강**	7	컴퓨터	한국
D**	8	외국어	한국
히**	10	소설	일본
E**	13	만화	일본
무**	15	소설	일본
허**	20	만화	한국
이**	21	만화	한국
베**	22	소설	프랑스
A**	23	만화	일본

단체인 경우는 23위까지 13개의 단체가 저작자로 참여하였으며 단체는 모두 아동용 만화저작물을 출판하였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판한 저자는 한국인이 5명이었으며 외국인이 5명으로 조사되었다. 주제는 만화가 5개였으며 나머지 5개는 소설과 컴퓨터와 외국어 등으로 조사되었다. 소설의 경우에는 해외 저자의 작품이 번역되어 출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저자가 집필한 만화 이외의 출판물은 모두 학습교재였다.

2개 이상의 추천 도서를 출판한 출판사는 191개 사였으며 이 가운데 상위 10개의 출판사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이 가운데 4개의 회사가 베스트셀러를 여러번 출판한 회사이다. 4개의 출판사를 비롯하여 추천 도서를 2개 이상 추천한 출판사는 만화나 학습교재를 대부분 주 출판물로 출판하지 않는 회사들이었다. 특히 베스트셀러 다출판 출판사의 1, 2, 3위의 출판사의 저작물이 추천 도서에 등재된 건수는 1건이었다.

한편 2번 이상 추천 도서에 추천된 저자는 모

두 29명이었으며(2인 저작물 1권 포함) 이 가운데 4명이 해외였으며 3명의 미국인과 1명의 일본인이었다. 25명의 저자들이 한국인이었다.

4.3 대출데이터와 비교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를 대출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추천 도서의 포함 정도와 베스트셀러의 포함 정도를 분석하였다.

4.3.1 추천 도서

추천 도서가 실제로 10년간 도서관 대출에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으며 다음 <표 10>은 대출빈도 10위까지의 예시이다.

추천 도서로 이루어진 10년간 전체 추천 도서의 대출수 평균은 14,871권이었으며, 중간값은 6,506권이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추천 도서 가운데 가장 많은 대출수를 보인 것은 혜민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저작물의 주제는 7권이 문학으로

<표 9> 2개 이상 추천 도서를 출판한 출판사

출판사	출판수
문***	23
김***	20
위***	15
시***	14
웅***	13
2***	12
샘***	10
책***	9
글***	9
휴***	8

〈표 10〉 추천 도서 대출상위 일부

주제	서명	저자명	출판사	발행년	추천년	대출수
문학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012	2012	145,801
문학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6	2017	139,907
문학	덕혜옹주	권비영	다산북스	2009	2010	113,549
인문	책은 도끼다	박응현	북하우스	2011	2011	86,929
인문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문학동네	2010	2011	86,536
문학	바보 빅터	호아킴 데 P, 외	한경BP	2011	2015	78,290
문학	오직 두 사람	김영하	문학동네	2017	2017	72,437
문학	내일	기욤 뫼소	밝은 세상	2013	2014	63,135
문학	말의 품격	이기주	황소북스	2017	2017	62,112
문학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줄리언 반스	다산북스	2012	2012	56,326

조사되었으며 인문이 2권, 유아가 1권이였다. 또한 저자는 국내 저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푸에르토리코 1명, 프랑스 1명, 영국 1명으로 조사되었다. 상위랭킹 10위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전체 대출빈도의 순위에서 14,006위로 조사되었다. 추천 도서 중 가장 적은 대출빈도수를 보인 것은 2019년에 출판된 이시형의 ‘어른답게 삼시다’로 11,327위에 존재하였다. 특히 2019년에 출판되어 대출의 누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4.3.2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로서 전체 10년간 대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으며 다음 〈표 11〉은 상위 10위까지의 일부 예시이다.

베스트셀러로서 대출빈도가 높은 상위 10편의 자료는 6권의 소설과 4권의 유아아동 자료로 조사되었다. 상위 대출빈도가 높은 10명의 작가 가운데 한국작가는 4명이었으며 독일작가 2명, 일본작가 2명, 영국작가 1명, 미국작가 1명으로 조사되었다. 전체베스트셀러의 평균 대출

〈표 11〉 베스트셀러 대출상위 일부

주제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	대출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12	233,375
소설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2010	185,645
소설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2011	184,645
유아	강아지똥	권정생	길벗어린이	2010	149,263
아동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2010	140,921
아동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미카엘 엔데	한길사	2010	138,332
유아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0	129,633
소설	빅 픽처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2010	120,999
소설	두근 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2011	119,862
소설	1Q84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2011	115,476

수는 53,531권이었으며 중간값은 14,273권이였다. 베스트셀러 상위대출도서 10개로 분석하면 19위였으며, 가장 작은 대출율을 보인 박혜정의 '빅스텝 = 당신의 경제 보폭을 키우는 법'은 전체 2,309위에 해당하였다.

4.4 도서관 정보나루 대출데이터 분석

도서관 정보나루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상위 5,000위를 대상으로 연도별 중복을 포함하여 총 50,000권이다. 이 데이터는 도서관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확보하였다. 이 데이터를 도서관 정보나루 대출데이터 혹은 정보나루 대출데이터로 기술하였다.

4.4.1 도서관 정보나루 대출데이터의 특성

대출데이터의 연도별 중복을 제거하면 17,083권으로 줄었으며 전체 195,686,473건의 대출이 발생하였다. 대출데이터를 기준으로 약 80~82%가 전체 상위권 대출의 90%를 감당하고 있고, 약 27~29%가 전체 상위권 대출의 50%를 감당하고 있다. 이는 남영준, 양지안(2010)이 전체 대출

건수의 50%를 대출도서의 20%인 집중장서가 차지한다는 결과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일정부분의 장서가 전체 대출량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다. 일련의 파레토법칙이 공공도서관 대출패턴에서도 굳건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의 대출데이터에 대한 감당량을 조사하였다. 추천 도서는 1,051권의 추천 도서로 전체 대출데이터 가운데 3,093,264건의 대출을 감당하였고, 베스트셀러는 30,439권의 베스트셀러로 전체 대출데이터 가운데 124,577,415건의 대출을 감당하였다.

이를 도서 한권당 대출수로 환산하면 추천도서 1권은 약 2,943권의 대출을 발생시켰으며, 베스트셀러는 1권은 약 4,093권의 대출을 감당하였다.

4.4.2 대출데이터 기반 분석

이 연구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한 대출데이터 가운데 누적한 대출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대출빈도로 조사된 상위 10개의 대출데이터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상위대출데이터의 상위 10위 리스트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분류번호	주제	대출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12	833.6	문학 > 일본문학 > 소설	233,375
太白山脈	조정래	해냄	2002	813.62	문학 > 한국문학 > 소설	217,273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2008	813.6	문학 > 한국문학 > 소설	185,645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2011	813.7	문학 > 한국문학 > 소설	184,645
강아지똥	권정생	길벗어린이	2012	813.6	문학 > 한국문학 > 소설	149,26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앤파커스	2012	818	문학 > 한국문학 > 르포르타주 및 기타	145,801
채식주의자	한강	창비	2007	813.6	문학 > 한국문학 > 소설	143,958
정글만리	조정래	해냄출판사	2013	813.62	문학 > 한국문학 > 소설	141,092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김영사	2001	853	문학 > 독일문학 > 소설	140,921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6	813.7	문학 > 한국문학 > 소설	139,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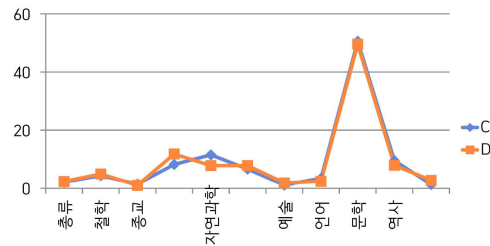
조사 대상기간 중에 가장 많은 누적 대출수를 기준으로 히가시노 게이코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며, 10위안의 자료는 모두 소설이었으며, 저자는 국내 작가 8명과 해외 작가 2명이었다.

한편 대출데이터의 전체 주제에 대한 대출분포와 주제에 대한 대출건수와 백분율을 조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대출데이터의 주제는 한국십진분류표에 의해 구분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도서관정보나루에서 주제영역 필드에 아무런 데이터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미배정된 데이터를 합하여 전체 195,686,473의 대출건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일차적으로 중복된 책은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연도별 대출빈도수를 모두 합하여 대출건수에 합한 대출빈도수를 더하였다. 분석한 결과 문학의 대출은 전체 대출에서 50.6%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자연과학이 11.6%를 차지하였으며, 역사분야도 9.5%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출권수로

수를 의미하였다. 이 필드는 대출이 한번이라도 발생한 책의 권수를 의미하며 중복된 경우에는 1권으로 계산한 수치를 기입한 필드이다. 문학분야의 문헌 8,480권이 전체 대출을 일으킨 책의 4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사회과학문헌과 역사문헌이 각각 11.8%와 7.9%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학도서관과 같은 전문도서관에서도 문학분야의 장서가 전체 대출 장서의 상위를 감당하고 있다는 연구(김에스터, 남영준, 2015)와도 일치하여 문학장서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출백분율(C)과 주제백분율(D)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출율과 주제백분율

<표 13> 대출데이터 전주제 대출빈도수와 대출권수

주제	세부주제 예	대출수	대출백분율(C)	대출권수	자료백분율(D)
총류	지식, 학문일반	4,083,621	2.1	386	2.3
철학	심리학 윤리학	8,407,541	4.3	834	4.9
종교	불교, 기독교	2,762,062	1.4	179	1.0
사회과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풍속학	15,972,864	8.2	2,014	11.8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22,526,397	11.5	1,325	7.8
기술과학	식품, 육아	12,827,694	6.6	1,324	7.8
예술	회화, 오락	2,197,605	1.1	303	1.8
언어	어휘, 문법	6,735,629	3.4	418	2.4
문학	소설	99,132,349	50.6	8,480	49.6
역사	지리, 전기	18,528,445	9.5	1,345	7.9
주제미배정	기타	2,512,266	1.3	475	2.7
합계		195,686,473	100	17,083	100.0

〈그림 1〉에 따르면 자연과학은 사회과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문헌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발생한 것이며 언어와 역사분야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4.3 대출데이터에 대한 정성적 분석

자료의 유형 가운데 아동도서는 진 주제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자연과학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장서가 수학과 물리학, 지학 등의 주제를 갖는 아동용 학습만화였다. 교양도서는 전체 자연과학 분야 장서 가운데 5% 미만이었다. 〈표 14〉는 자연과학분야의 상위대출도서이며 상위 100권은 모두 아동학습용 만화로 나타났다.

아동용 학습만화가 전체의 95%이상의 차지

하고 있었다. 대출빈도 상위 100위 이내에 학습만화는 모두 자연과학 만화뿐이었다.

문학분야의 대출은 대부분 각국의 소설류였으며 모든 해외소설은 번역본이었다. 소설의 국가별 분포도는 〈표 15〉와 같았다.

전체 문학으로 분류된 8,480권이었지만 이 가운데 194권은 문장작법, 수사학과 전집, 총서로 분류되어 특정 국가별 소설로 간주하기 어려워 별도로 문학총론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대출된 소설 가운데 한국 문학작품이 전체 8,286권 가운데 4,357권을 감당하고 있어 전체의 51.3%로 조사되었으며 영미문학과 일본 문학작품이 각각 20.5%와 14.6%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해당 문학소설들이 전체 대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출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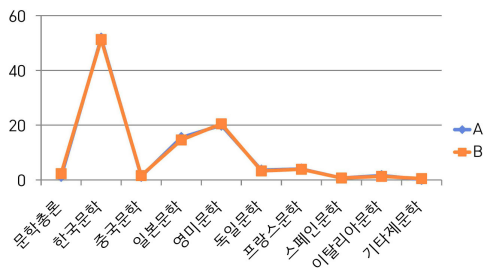
〈표 14〉 자연과학 분야 대출빈도 1~3위

ISBN	서명	저자명	대출빈도
9788937847684	내일은 실험왕 : 본격 대결 과학실험 만화	곰돌이, 홍종현	93162
9788937847677	내일은 실험왕 : 본격 대결 과학실험 만화	곰돌이, 홍종현	90037
9788937847707	내일은 실험왕 : 본격 대결 과학실험 만화	곰돌이, 홍종현	89104

〈표 15〉 문학부분 국가별 자료수와 대출빈도

문학분석	대출수	감당백분율(A)	대출감당권수	감당권수백분율(B)
문학총론	1,312,758	1.3	194	2.3
한국문학	51,316,660	51.8	4,357	51.3
중국문학	1,321,708	1.3	136	1.6
일본문학	15,361,963	15.5	1,238	14.6
영미문학	19,782,523	20.0	1,735	20.5
독일문학	3,541,121	3.6	284	3.3
프랑스문학	3,977,972	4.0	327	3.9
스페인문학	661,660	0.7	65	0.7
이탈리아문학	1,608,720	1.6	104	1.3
기타제문학	247,264	0.2	40	0.5
합계	99,132,349	100	8,440	100

국소설은 문학분야 전체 대출수에서 51.8%를 감당하고 있었다. 즉 문학분야 전체 대출수와 대출감당권수 모두 한국문학작품이 대출의 50% 이상을 감당하고 있었다. 또한 다음 <그림 2>와 문학분야 지역별 대출수 감당백분율(A)와 대출감당권수백분율은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대출추이를 분석하면 대출수 혹은 대출감당권수로 분석하여도 분석의 방향은 매우 유사할 것이다.



<그림 2> 문학분야 대출패턴(지역)

5. 결론

이 연구는 사서의 판단과 이용자 요구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 혹은 동기화 현상을 분석하여 디지털 지능정보화사회에 이용자에게 의미 있고 합리적인 장서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계량화된 객관적 기준점 제시를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 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사서추천 도서 리스트(2010~2019년)
- ② 국내 유통판매서적회사의 10년간 베스트셀러 리스트(2010~2019년)

- ③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보나루의 10년간 대출통계(2011년~2020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제하여 정련한 결과 ① 국립중앙도서관 추천 도서는 1,051권이였다. ② 베스트셀러는 총 54,969권이였으며 중복을 제거하면 30,439권의 베스트셀러가 존재하였다. ③ 도서관 정보나루의 50,000권 중에서 중복출현한 도서를 제거하면 17,083권이였다.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가 함께 추천한 도서는 341권이였으면 추천 도서의 관점에서 31.46%의 추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추천 도서는 문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의 주제가 균형감있게 선정되었으며 전문서적보다 교양서 위주로 선정을 하였다. 이에 비해 베스트셀러는 학습만화나 어학교재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주제별 균형감이 추천 도서에 비해 떨어졌다. 이런 특성은 동시 선정도서가 문학보다 비문학의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스테디셀러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부 정기간행물 형태의 학습서가 대부분이었다. 고전문학작품이 스테디셀러에서는 현대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대소설로서 스테디셀러는 특정 작가에 의존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의 선후관계는 추천과 동일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추천이 베스트셀러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베스트셀러가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구체적 형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섯째, 추천 도서는 저자와 출판사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베스트셀러는 출판사와 저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만화와 아동용 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의 도서는 베스트셀러 선정에 상당부분 상관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학습용 만화로서 베스트셀러는 특정 저자보다 해당 출판사의 편집부로 저자가 대부분 표기되어 있었다.

여섯째, 추천된 도서 한권당 추천 도서의 대출수 평균은 14,871권이었으며, 중간값은 6,506권이었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도서 한권당 평균 대출수는 53,531권이었으며 중간값은 14,273권이었다. 따라서 추천 도서는 1,051권은 전체 대출수에서 3,093,264건의 대출을 감당하였고, 베스트셀러는 30,439권의 베스트셀러로 전체 대출데이터 가운데 124,577,415건의 대출을 감당하였다.

일곱째, 도서관 정보나루 대출데이터는 17,083권으로 전체 195,686,473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대출데이터를 기준으로 약 80~82%가 전체 상위권 대출의 90%를 감당하고 있고, 약 27~29%가 전체 상위권 대출의 50%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는 일련의 파레토법칙이 공공도서관 대출패턴에서도 굳건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여덟째, 대출데이터 전체에서 문학의 대출은 전체 대출에서 50.6%를 차지하였으며, 문학 중에서 한국문학작품이 전체 8,286권 가운데 4,357

권을 감당하고 있어 전체의 51.3%를 차지하여 대출에서의 문학작품이 비중과 한국문학의 중요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아홉째, 정성적 분석으로는 자연과학은 다른 주제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문헌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언어와 역사분야도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자료의 유형 가운데 아동도서는 전 주제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자연과학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장서가 수학과 물리학, 지학 등의 주제를 갖는 아동용 학습만화였다.

아홉째, 사서 추천목록이 읽히고 싶은 사서의 의지라면 베스트셀러 목록은 읽고 싶은 이용자의 요구를 의미한다. 이 연구조사에서도 사서와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대한 교육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교양 영역의 도서를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문학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10년간의 데이터를 제한적 숫자만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체 대출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한정된 연구를 수행한 것과 데이터 품질의 한계로 최소한의 데이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10년의 기간과 데이터 클렌징을 통해 이러한 제한점을 최대한 해결하였다. 향후 도서관 정보나루 전체 대출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후속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 장덕현 (2012).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457-479.
<http://doi.org/10.16981/KLISS.43.3.201209.457>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공공도서관장서관리매뉴얼. 국립중앙도서관.
- 권이은 (2020). 베스트셀러 속 등장인물의 문식 활동 분석: 어린이 대상 도서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0, 125-154. <http://doi.org/10.24008/kle.2020..30.005>
- 김선남, 박홍재 (2006). 한국 베스트셀러 집계방식에 관한 연구. 51, 한국출판학연구, 63-94.
- 김에스더, 남영준 (2015). 의학도서관의 단행본 장서구성을 위한 이용자 연구: A 의학도서관 대출기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3), 261-276. <http://doi.org/10.3743/KOSIM.2015.32.3.261>
- 남영준, 양지안 (2010).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메타서치시스템 이용행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3), 307-323. <http://doi.org/10.3743/KOSIM.2010.27.3.307>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도 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박경희, 조아라, 이명규 (2021). 초등학생의 자기 선택적 독서가 독서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253-274. <http://doi.org/10.16981/kliss.52.2.202106.253>
- 서울시교육청정독도서관 (2020). 정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내부규정.
- 이경민 (2012).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161-181. <http://doi.org/10.16981/kliss.43.4.201212.161>
- 이중환 (1990). 베스트셀러도 추천 도서일 수 있다. 출판저널 63, 20-21.
- 장동석, 정윤희, 송보경, 이주연 (2006). 베스트셀러, 문화적 '비타민' 인가, '계류' 인가. 출판저널 371, 29-33.
- 중량구립정보도서관 (2019). 중량구립정보도서관장서개발지침.
- 한국비블리아학회 (2008).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기본장서목록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ALA (2018) Best Sellers: Books most borrowed, January 2018. Jan 12, LJ.
- Bassett, T. J. & Walter, C. M. (2001). Booksellers and bestsellers: british book sales as documented by "the bookman", 1891-1906. Book History, 205-236.
- Crawford, G. A. & Harris, M. (2001). Best-sellers in academic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2(3), 216-225.
- Edward A. G. & Lawson, K. (2015).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demand-driven acquisitions in academic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6(2), 205-221.
- Kenton County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접근일: 2019년 11월 11일 Available: <https://www.kentonlibrary.org/aboutus/collection-development/collection-development-p>

olicy

Tyler, D. C., Hitt, B. D., Nterful, F. A., & Mettling, M. R. (2019). The scholarly impact of books acquired via approval plan selection, Librarian Orders, and Patron-Driven Acquisitions as Measured by Citation Count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80(4), 525-56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ungnang-gu library (2019). Collection management guideline for the Chungnang-gu library. Jang, Dong Suk, Jeong, Yoon Hee, Song, Bo Kyung, & Lee, Joo Yeon (2006). Best seller, cultural “vitamin” or Gyerreuk.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371, 29-33.

Jeongdok Library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0). Internal guideline, Book Selection Committee of Jeongdok Library.

Kang, Eun-Yeong & Chang, Durk-Hyun (2012). A study on the selection proces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457-479. <http://doi.org/10.16981/KLISS.43.3.201209.457>

KBSLIS (2008).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basic collection list management of public libraries, National Library of Korea.

Kim, Esther & Nam, Young Joon (2015). A user study for the collection management of a medical library: focused on the analysis of circulation data of the a-medic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261-276.

Kim, Sun Nam & Park, hong jae (2006). A study on counting method used in determining best-seller books.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51, 63-94.

Kwon, EEn (2020). Study on literacy activities of characters in bestseller books. *Korean Literature & Language Education*, 30, 125-154. <http://doi.org/10.24008/klle.2020..30.005>

Lee, jung han (1990). Bestsellers can also be recommended books,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63, 20-21.

Lee, Kyung-Min (2012). A study of reading education methods for university student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161-181. <http://doi.org/10.16981/KLISS.43.4.201212.16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2021 Evaluation report of korean libraries management.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m, Young Joon & Yang, Ji-Ann (2010). A study on use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metasearch system in the academic library.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3), 307-323. <http://doi.org/10.3743/KOSIM.2010.27.3.307>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10). *Collection management manual of public librar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Park, Kyung Heui, Jho, Ara, & Lee, Myounggyu (2021). The effect of self-choice reading on reading interes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book selection class in a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2), 253-274. <http://doi.org/10.16981/KLISS.52.2.202106.253>